

같이 보기

: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00 : 00 : 00

RAW

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센터 환경위생팀 노효경 파트장



모가디슈 (Escape from Mogadishu, 2021, 한국)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에 휘말린 남북 대사관의 탈출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탈출 과정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남북의 화합을 볼 수 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북한 대사관 일행을 집에 데리고 모가디슈를 함께 탈출하는 모습은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장면이다.

코로나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소원해진 만큼 이 영화를 보며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지난 2월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콘텐츠의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 작년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영화, 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의 인기가 거세다. 팬데믹으로 지친 이들에게 힐링 시간을 선물할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의 추천 영화를 소개한다”



올드마린보이 (Old Marine Boy, 2017, 한국)

사랑하는 아내,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한 박명호 씨가 가진 것은 몸 하나 뿐. 몸에 좋다는 것은 모조리 섭취하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며 오늘도 바닷속으로 몸을 던진다. 나이 50이 되는 동안 잠수병으로 소중한 동료 여럿을 잃고 자신 역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공포를 경험해왔지만, 소중한 가족을 위해 물질을 중단할 수 없다. 진모영 감독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 시대 평범한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헌사와 같은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

